

# 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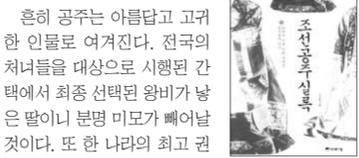
Books

## ‘왕의 딸’ 국익에 희생된 그녀들의 삶

# 화려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다

### 조선공주실록

신명호 지음



흔히 공주는 아름답고 고귀한 인물로 여겨진다. 전국의 처녀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간택에서 최종 선택된 왕비가 낳은 딸이니 분명 미모가 빼어날 것이다. 또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의 사랑과,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녀들의 삶은 한 국가의 안위를 위해 언제든 지수단화 될 수도 있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선임연구원 등을 지낸 신명호의 새책 ‘조선공주실록’은 일곱 공주의 삶을 추적한다.

저자는 공주라는 단어는 중국의 진(秦)나라 때 황제가 딸의 혼인을 삼공(三公)에게 맡겨 주관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고 소개한다. 조선에는 38명의 공주와 왕의 측실이 낳은 딸인 옹주(翁主) 78명이 있었다.

이중 상당수의 공주들이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적 삶을 희생당했다.

효종의 딸인 의순공주의 일생이 가장 대표적이다. 의순공주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섭정왕인 도르곤에게 시집보내기 위해 효종의 양녀로 공주에 봉작

(封爵) 된다.

16세였던 의순공주와 결혼한 도르곤은 당시 39세였지만 신혼 1년 만에 숨을 거둔다. 도르곤은 사후 역적으로 몰려 그의 여인들은 고관대작들에게 분배됐고, 의순공주는 다시 황족인 박락의 아내가 되지만 그 또한 1년 만에 사망하게 된다.

북경에서 혼자 외롭게 3년여를 지내던 의순공주는 친아버지의 청원에 따라 조선에 되돌아오지만 ‘화남년’이라는 수군거림 속에서 쓸쓸하게 살다 28세에 숨을 거뒀다.

열네 살 때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도쿄로 유학을 갔다 대마도 번주 종무지와 정략 결혼을 한 고종의 딸 덕혜옹주도 타국에서 망국의 한을 달래야 했던 비운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유치원 때 일본인 보모에게서 일본식 교육을 받은 뒤 일본 학교에 들어가야 했다. ‘게다’를 신고 ‘하오리’를 걸친 채 검은 마차를 타고 통학했으며, 일본 노래를 불렀어야 했다.

1930년 정략 결혼한 종무지는 잘생긴 엘리트 청년이었지만 둘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고, 1955년 합의를 이혼했다. 그녀는 이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밖에 부마 간택의 시초가 됐던 정선공주, 왕의 딸이라는 이유로 권력투쟁에 휘말려 남편과 친동생 단종을 잃고 노비로까지 전락한 경혜공주, 저주 혐의로 어머니와 남편을 잃고 귀양에 처한 효명공주 등의 고난한 삶이 담겼다.

부록으로 조선시대 모든 공주, 옹주 일람, 공주 관련 용어와 제도 등을 곁들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역사의 아침·1만5천원)

/오랑북기자 kroh@kwangju.co.kr



고종의 딸 덕혜옹주. 일본 대마도 번주 종무지와 정략결혼했다가 이혼.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비운의 삶을 살았다.

### 2인자의 삶과 리더십

#### ‘저우언라이...’ 평전

사립 차츰 중국을 수십 차례 방문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온 김상문(57·한국인공기업 회장)씨가 중국인의 존경을 받으며 받는 중국 전 공산당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삶과 리더십을 살펴본 평전 ‘저우언라이-UN도 감동한 위대한 지도자’를 펴냈다.

저자는 저우언라이가 마오쩌둥(毛澤東)에 이은 2인자였음에도 중국인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은 것은 스스로 명예보다 인민을 위해 평생을 보낸 품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자신을 낳고 1인자의 의무와 책임까지 떠안은 ‘리더십’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아름다운사람들·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 로자의 인문학 서재

이현우 지음

책 관련 글을 읽기 위해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면 ‘로자’라는 이름을 자주 만나게 된다. ‘인터넷 서핑꾼’으로 통하는 그의 글은 해박한 지식과 빼어난 글쓰기가 어우러져 읽는 재미를 준다. 특히 인문학 분야 관련 글쓰기는 독보적이다.

여차 여차 길을 물어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꾸러진 블로그 ‘로자의 저공비행’(http://blog.aladdin.co.kr/mramor)에 당도하면 그 방대한 정보에 입이 벌어진다.

로자가 온라인을 벗어나 책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최근 나온 ‘로자의 인문학 서재’를 통해서다.

## 종횡무진 책읽기·빠딱한 글쓰기의 재미

로자 특색부르크를 연상하는 탓인지 사람들은 그를 ‘여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자 이현우는 서울대 노어노문학과 박사를 마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남자 강사다. ‘로자’는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코프의 애칭이다.

책의 출발은 매일 1천명 이상 방문하는 블로그 ‘로자의 저공비행’이고,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썼던 글들을 모았다.

스스로를 ‘겉다리 인문학자’라고 표현한 저자의 글은 ‘종횡무진’이다. 특정 장르에 국수되지 않는다. 만화와 자기계발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르의 책이 그의 레이더망에 걸리고 영화, 철학, 예술을 아우른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로자의 서재는 모두 다섯개다. 첫번째 서재 ‘로자의 문화 노트’는 책읽기에 대한 생각을 만날 수 있는 코너로 김훈·김규하·고종석

의 문체를 들여다본 대목이 흥미롭다.

두번째 서재 ‘로자의 예술 리뷰’에는 영화 ‘나쁜 피’, 김기덕의 ‘빈집’과 ‘사마리아’에 대한 비평과 미술 에세이가 담겼으며 세번째 서재 ‘로자의 철학 페이퍼’는 니체와 벤야민 데리다를 만나는 공간이다.

현대 철학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지식을 소개하는 ‘로자의 지적 읽기’와 번역에 대한 날카로운 글들을 모은 ‘로자의 번역 비평’이 네번째와 다섯번째 서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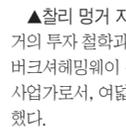
이 책은 저자가 말하는 ‘즐거움 지식’을 찾아 향해하는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한다. 다소 어려운 글도 있지만, 이 책에 언급된 수많은 책 가운데 단 몇권이더라도 읽게 된다면 우리의 사고 지평도 조금은 넓어질 듯하다. (신책자·1만 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책



오늘이 내 삶의 클라이맥스=평범한 가정주부 이경자에서 ‘세계 20대 헤어드레서’로 성공한 그레이스리, 그리고 중국음악 요리아 이선생까지 여러 모습으로 변신해 온 저자의 삶을 담은 자전 에세이. 일흔이 넘어서도 멈추지 않는 열정과 도전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축복으로 만든 저자의 인생 여정을 담았다. (김영사·1만원)



▲찰리 멩거 저내가 옳아=‘워런 버핏’ 평생의 파트너인 찰리 멩거의 투자 철학과 경영 마인드를 소개한다. 35세에 워런 버핏을 만나 버크셔해밀웨이 부회장으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성공한 투자자와 사업가로서, 여덟자녀의 아버지로서의 찰리 멩거 인생 전반을 조망했다. (이문·1만6천원)



▲산이 좋아 산에 새네=‘산 깊은 감’ 등 자연과 벗하는 에세이를 써 온 박원식씨가 도시를 벗어나 산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 28명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간디학교’를 설립한 김광화, 소설가 한승원, 이희수, 시인 조동환, 서양화가 김만근 등 산이 좋아 산에 사는 이들의 산골 생활 애환과 정취 등을 담았다. (창해·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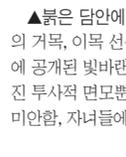
▲천고의 명의를=동양의학의 창시자 편자, 외과의 비조로 불리는 화타, 상한론의 시초 장중경, 약왕(藥王) 손사막, ‘본초강목’의 저자 이시진 등 중국 역사 최고의 명의로 추앙받는 5인을 소개했다. 쏠리친 등 중국 CCTV 인기프로그램 ‘백가강단’의 스타강사들이 각각 한명씩 맡아 재미있게 풀어냈다. (육당·1만2천900원)



▲꽃집=환경운동가이자 화가인 정삼명씨가 다양한 매체에 기고해 온 글을 묶은 산문집. 첫째 딸을 잃은 슬픔을 크고 화려한 꽃집이라고 말하는 저자의 생애에 대한 궁정과 풀꽃, 무련꽃, 개나리 등 자연을 소재로 한 글과 직접그린 그림이 조화를 이뤘다. (이루·1만원)



▲여성의 우월성에 관하여=‘알코올과 예술가’라는 독특한 에세이로 한국에 소개된 프랑수아 쥘렌 작가 알레산드르 라크루아의 소설, 사랑과 이별, 지루한 일상에서 활기를 찾고 싶었던 동거 12년차 남편의 적나라한 삶의 이야기를 섬세하고 유머러스하게 그렸다. (뮤진트리·1만2천원)



▲붉은 담안에서 전한 사연=1960년대 교육 운동을 이끈 교육계의 거목, 이목 선생의 육중(1960년부터 5년간) 서간집. 반세기 만에 공개된 빛바랜 편지에는 참고교 실현을 위해 개인의 안위를 내던진 투사적 면모뿐 아니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내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 자녀들에 대한 살뜰한 관심 등이 여과 없이 담겨 있다. (우리교육·1만8천원)



▲콩고의 판도라=‘이야기 미술사’로 통하는 에스파냐 소설가 알베르트 산체스 피올를 세계적인 작가의 위치에 올린 작품. 전작 보다 더 복잡하고 박진감 넘치는 구성으로 작품성과 독자를 획득한 놀라운 소설이다. 1912년, ‘세계와 세계의 경계’ 아프리카 콩고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썼다. (들녘·1만3천원)

**(주)국민법률경제대**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 법원 부동산 경매정보

공인중개사  
경매분석사 : **김행숙**  
☎ 062)351-8240  
H.P 010-7203-1100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경상구	소매지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남구	소매지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북구	소매지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서구	소매지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동구	소매지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북부	소매지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남부	소매지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서부	소매지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동부	소매지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합계	102	8천7백	6천

경매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부동산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